4 · 1 무주만세운동 기념식 가져

황인홍 군수 등 100여명 동참 만세 부르며 나라 · 무주 사랑 마음 새겨

무주군은 1일 4.1무주만세운동 105주년을 맞아 무주읍 반딧불시장 원형광장에서 기념식을 가졌다.

무주군은 1일 4.1무주만세운동 105주년을 맞아 무주읍 반딧불시장 원형광장에서 기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무주군기독교연합회(회장 조인희 진도교회 목사)가 주관한 가운데 황인홍 무주군수와 이해양 무주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군민 등 1백여 명이 동참해 의미를 더했다.

참석자들은 '독립선언서 낭독'과 '나라와 민족, 무주군을 위한 기도', '3.1절 노래 제창', '만세삼창' 등의 시간을 함께하며 1919년 3.1 운동을 계기로 무주 장날 봉기했던 4.1 무주만세운동을 기렸다.

이 자리에서 황인홍 무주군수는 "4.1 무주만세운동은 내 나라, 내 고장을 지키고자 했던 우리 군민의 저력이었다"며 "105년 전 우리 선조들의 마음이 앞으로 백 년, 또 천 년을 이어 후손대대 전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지금 이곳을 꽉 채운 열기와 함성이 자연특별시 무주를 키우는 동력이자 무주방문의 해 성공을, 그리고 군민 서로를 향한 위로와 응원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4.1 무주만세운동은 1919년 3.1 운동에 대한 소식과 독립선언문이 무주지역에 전해지면서 그해 무주 장날(4.1.) 일어났으며, 이를 계기로 총 7회에 걸쳐 3,500여 명이 참여한 만세운동이 봉기했다.

4.1 무주만세운동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인물은 전일봉 선생(1896~1950)으로 무주읍 지남공원에 그의 동상이 자리하고 있다. 또 당시 전일봉 선생이 '삼숭학교' 간판을 걸고 학생들(무주, 진안, 장수지역)에게 민족의식을 심어주던 여올교회는 적상면에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신바람 나는 일터 조성 다짐

무주군, 월례조회서 산불 예방 · 영농 지원 등 최선 강조

무주군 공직자들은 1일 무주군민의 집에서 열린 4월 월례조회에서 적극적인 업무추진 의지를 다졌다.

이 자리에서 4월에 계획된 업무는 물론, 각자 품은 목표와 꿈을 향해 한 발 더 내딛는 한 달을 보내면 좋겠다고 말문을 연 황인홍 군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준비 및 추진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무주다운 인구정책 추진과 △산불 예방 총력, △알맞은 시기 영농지도와 농기계 임대, 일손 지원 등 영농철 농가 지원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인구문제와 관련해서는 "인구는 지역을 지탱하는 힘이자 존재 이유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지방소멸 위기는 우려를 넘어 현실이 될 수밖에 없다"며 "우리 군은 65세 이상 어르신 인구가 전체 인구의 37%를 육박하는 초고령사회, 한 해 7백만 이상이 다녀가는 관광도시라는 특성을 고려한 정책을 마련해야 하고 이를 위해 전 직원이 아이디어와 마음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인구문제가 우리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역 간 경쟁 또한 피할 수 없는 수순"이라며 "이것이 소모전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무주다운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황 군수는 △분야별로 접수되는 민원을 비롯해 열린 군수실 건의 사항의 신속한 해결, 그리고 △신속 집행 등의 현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이외에도 신바람 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에 힘써줄 것을 주문해 눈길을 끌었다. 황 군수는 "우리 모두에게 직장은 생계유지 활동을 위한 공간이자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장소"라며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 형성된 관계와 문화, 분위기에 따라 직장생활의 질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전했다. "그래서 상호 노력이 필요한 것"이라며 "각자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물론, 생각의 차이와 다름은 인정하고 상호 예의를 지켜 언제나 일하고 싶은 직장 분위기를 만들어 갈 것"을 주문했다.

이 자리에서는 민원봉사과 김성기 주무관과 의료지원과 정하나 주무관, 무풍면 박주남 주무관, 건설과 김민성 주무관이 1분기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돼 표창을 수상했다.

한편, 이날 월례조회에 참석한 2백여 명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군정홍보 관련 교육"은 서울시의회 연설비서관과 방송기자 등을 지낸 생각표현연구소 김주리 소장이 강사로 참여해 △홍보의 이해와 중요성, △홍보 수단으로서의 보도자료, △언론과의 소통 원칙 등을 강의해 호응을 얻었다.

/무주=전문선 기자

딸기 우량묘 생산 기반 구축 박차

진안군, 올해 시범사업 3개소에 1억6000만원 투자

진안군은 관내 딸기 농가의 육묘 구입비 절감 및 관내 우량 딸기묘 공급 확대를 위해 우량묘 생산 시범사업에 나선다.

군은 관내 딸기재배 농가 대부분이 타 지역에서 딸기묘를 구입해 오고 있으며, 구입한 묘가 고온으로 인한 병해충 발생과 늦은 꽃눈분화(딸기가 생육하는 도중에 영양조건, 기간, 기온, 일조시간 등의 필요조건이 다 충족되어서 꽃눈을 형성하는 일) 등으로 딸기 생산이 늦어지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여름철 고온 및 이상기온으로 딸기묘 품질이 좋지 않거나 가격이 계속 상승해, 올해는 묘 1주당 800원까지 올라가 농가 경영비 부담이 가중되어, 관내 딸기 농가의 우량묘 자가 생산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진안군은 시범사업 대상으로 3개소 0.3ha를 선정하고 사업비 1억6000만원을 투입해 양질의 딸기 묘목 생산에 나서게 된다.

사업은 기존 하우스를 활용해 고설벤치 육묘시설, 고온예방 시설, 포트육묘 시설 등을 지원하여, 신품종인 홍희 딸기묘(대과종)와 함께 설향 딸기묘 등 10만주를 생산해 관내 농가에 우선 공급하고 외부에 판매할 예정이다.

특히 준고랭지 지역에 속하는 진안군 지역 특성 상 육묘 시 고온에 따른 병해충 발생 억제와 품질 좋은 건전묘를 만들 수 있고, 조기 꽃눈분화를 유도해 딸기육묘 재배에 적합한 만큼 양질의 육묘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진안군농업기술센터 고경식 소장은 "딸기 묘 생산은 진안고원이 적지이고, 딸기 농사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라며 "우량묘 생산을 위한 현장 컨설팅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소상공인 환경개선 최대 600만원 지원

진안군은 소상공인의 경쟁 · 자생력 강화를 위해 '2024년 진안군 소상공인 환경개선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

'진안군 소상공인 환경개선 지원사업'은 3년 이상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영업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업장 리모델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장당 지원 금액은 공급가액의 50%이며, 최대 지원 한도는 600만원이다.

올해는 총 16개소를 지원할 예정이며, 현재까지 8개소가 선정돼 사업을 진행 중이다.

지원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읍 · 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대기업과 프랜차이즈 업체, 휴 · 폐업 업체, 최근 5년 이내 동 사업 군 보조금을 지급 받은 업체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공고 내용과 신청서 양식은 진안군 누리집(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문의 사항은 각 읍 · 면 행정복지센터 및 진안군 농촌활력과 지역경제팀(063-430-8052)으로 문의하면 된다. /진안=우태만 기자

'제3회 장수트레일레이스' 6일 열린다

제3회 장수트레일레이스가 오는 6일 '한국의 샤모니' 장수군 일원에서 개최된다.

'장수러닝크루'(대표 김영록)가 주관 · 주최하는 이번 대회에는 국내외 선수 1,200여 명이 참가한다. 선수들은 20K, 38K, 70K 총 3개 코스를 통해 장수의 산과 계곡, 능선을 따라 달리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대회 전날인 5일에는 서밋 스프린트(4km)가 사전 운영된다.

본 행사가 치러지는 장수종합경기장에서는 장수군 지역 농산물 판매와 먹거리, 체험 부스 등이 대회장을 찾는 관람객들에도 다채로운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며, 장수트레일레이스를 후원하는 각종 브랜드도 만나볼 수 있다.

트레일러닝은 트랙이나 아스팔트 도로가 아닌 잔디나 흙, 숲길 등 자연을 달리는 산악마라톤으로 '장수트레일레이스'는 장안산, 팔공산, 동촌리 고분군, 승마로드 등 주요 관광명소를 지나 장수의 아름다운 풍광을 만끽하며 달릴 수 있어 특히 호평받고 있다.

김영록 대표는 "장수트레일레이스를 통해 청년이 지역에 활력을 불어 넣어 줄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다"며 "특히 이번 대회는 주민과 메인 스폰서인 스카르파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해 더욱 의미있는 대회가 될 것으로, 선수뿐만 아니라 군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스포츠축제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지역 소식통

장수군 마을활동가 입문 과정 진행

장수군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인 (사)장수지역활력센터는 지난달 29일부터 3일간의 마을활동가 입문 과정을 진행했다. 교육은 마을 활동에 관심이 있는 장수군민을 대상으로 선착순 모집해 15여 명이 참여했다.

마을활동가 입문 과정은 주민주도의 마을만들기 사업과 관련 △마을지원조사의 이해 △ 마을활동가의 역할과 필요성 △ 장수의 마을이야기 △민주적 소통진행자 역량 교육 등으로 진행됐다.

군의 마을만들기 사업은 주민들이 스스로의 문제를 찾고 해결하는 주체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마을활동가에게 주민의 한 사람이자 마을과 행정,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중요한 역할이 기대된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군 청소년참여기구 위촉식 · 모의투표 활동

진안군청소년수련관(관장 한효임)은 1일 2024년 청소년참여기구(청소년참여위원회 및 청소년운영위원회)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청소년참여기구는 청소년참여위원회와 청소년운영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 내 청소년 정책수립의 시행과정 및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에 관해 청소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된 기구다.

지난달 30일 진행된 위촉식은 청소년참여위원회 장효주(제일고 3) 학생을 비롯한 16명의 위원과 청소년운영위원회 안현정(마령고 3) 학생을 포함한 19명의 위원이 참여해 진행됐다.

특히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청소년 참정권 확대와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강화를 위한 청소년모의투표운동에 따른 워크숍을 진행했으며, 오는 4월 6일은 모의투표 사전투표소를 운영하여 관내 150여명의 청소년이 참여할 예정이다.

관내 청소년들에게 가장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청소년 정책 중 하나인 '청소년드림카드'는 청소년참여기구 활동의 큰 성과 중 하나로, 이와 같은 청소년의 정책 참여가 청소년들의 복지향상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펜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게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옥),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